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사순 제3주일



회개는 죽음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자연재해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폭력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1세기경의 2가지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8명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탑에 깔려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혹한 행위로 인한 죽음과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죽음을 나란히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자체로 비극이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비극일 것입니다.

다행히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가까이 열매를 맺지 않았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포도밭을 관리하던 포도 재배인의 설득 덕분에 주인으로부터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당장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지만 그 유예기간은 한정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1독서와 2독서는 복음에 등장하는 회개의 두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악을 탐내거나 투덜거리지 않도록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진”(1코린 10,5)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초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과 거름을 받은 무화과나무처럼 우리가 지금 회개를 위한 하느님의 자비를 이미 받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갑작스럽고 불합리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항거하기보다 살아 있는 시간 동안 회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는 죽음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느님을 담대히 마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머리를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하느님과 담대히 마주할 수 있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자비를 간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재덕 안토니오 신부 | 덕산동본당 보좌

주일 진레

제 1 독 서	탈출 3,1-8ㄱ,13-15
화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서	1코린 10,1-6.10-12
복 음	루카 13,1-9

캄보디아 어린이에게 희망을 쫓립쭙어! 캄보디아 뽀이뻬트에서 소식 전합니다.

요즘 신나는 도서관은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2022년 1월 3일, 도서관을 개방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바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근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고, 학교 수업이 비는 시간에 주로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함께 모여 숙제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피아노와 기타를 만지며 놀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방문하는 단골손님도 제법 있습니다. 문을 연 첫 주에는 하루에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루 평균 45~50명 정도가 꾸준히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일상이 안정적이 되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하나씩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이곳 캄보디아는 코로나 검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3차까지 백신 접종을 끝냈고, 4차 접종도 시작하고 있는 터라 캄보디아는 별로 크게 코로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도서관 인근 학교에 오미크론이 퍼져서 도서관을 잠시 닫아야 하나 걱정도 했지만 어떤 공식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쭙어쭙다이 츠남 트마이!!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 이해하기 ③

마산교구 시노달리타스 위원회

16차 세계주교시노드 로고 설명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16차 세계주교시노드 로고에는 지혜와 빛으로 충만한 커다랗고 위엄 있는 주황색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심오한 생명력과 희망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태양처럼 빛나는 성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이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과 같이 가로로 뻗은 가지들은 성령을 표현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노드'(synod)라는 단어의 어원이 의미하는 '함께 걷기'를 직접 보여 줍니다. 하느님 백성은 이 생명의 나무가 그들에게 붙어 넣어 준 그 동일한 힘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 15명의 실루엣은, 여러 세대와 출신으로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인류 전체를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양한 색채들로 강조되며, 이는 기쁨의 표징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곧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어린이, 평신도와 수도자, 부모와 부부와 독신자, 건강한 이와 장애인 사이에는 어떤 위계도 없습니다. 주교와 수녀가 이들의 선두에 서지 않고,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길을 열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그 아래에 가로글씨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 문구가, 하느님 백성이 나아가는 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으며, 그 발걸음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 공동질문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되기 위해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의 영적 동반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함을 끌어안고-고해성사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뭘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언제부터인가 내 고객들이 하나둘씩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고민을 좀 해 봤지.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 9화

편함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래 희망이나 소원을 물어볼 때, 안정된 직업이나 건물주를 말하는 것은 걱정 없는 편한 인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주'하려는, 곧 현재의 처지나 상태에만 만족하며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태도, 또는 삶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상황, 권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많은 가족과 안정된 상황 속에서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삶의 풍요를 누리던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법한 불편한 도전과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과 욥은 새롭게, 차원 높은 삶과 신앙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불편한 고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로 부모와 선생과 가정교사를 속인 것이 결국 놓고 싶고, 되잖은 구경이 하고 싶고, 애바르게 그따위를 본뜨고 싶어서가 아니었나이까? 더구나 나는 부모의 식량고방과 식탁에서 훔쳐내기까지 했습니다. 탐식이 시키기도 했거니와 아이들에게 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아구스틴, 고백록, 최민순 역, 제1권, 제19장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는 욕정의 충동을 따라 몸이 닳아서 당신 계명을 어기며, 당신의 채찍을 피하지 못하였사오니, 사람이면 누가 이를 피할 수 있으오리까. 제2권, 제2장

그 열여섯 살 나던 해, 정욕의 가시덤불이 내 머리에 뻗어 올랐어도 뽑아줄 손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2권, 제3장

나는 그 도둑질을 하려 들었고, 사실 범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어쩔 수 없는 군색에서가 아니오라, 정의가 없고 싶고, 불의에 배불러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진 것이 넉넉하고, 남의 것보다 훨씬 나았건만 이를 도둑질하기는 훔친 물건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둑질 자체 그 죄악이 좋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제2권, 제4장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의 역사를 낱알이 다 열어 보일 뿐 아니라, 그 죄 많은 삶 안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 사랑을 눈물로 고백한다. 이처럼 진솔하게 내면화된 '사랑'의 체험을 들려주는 교부나 저술가는 일찍이 없었다. 단순한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그것은 죄의 고백을 넘어서서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죄의 역사는 곧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역사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고백'이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서간 강해」(교부문헌총서)의 '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이 유명한 것은, 그가 뛰어난 신학을 펼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으로만 알려질 수도 있는 인물이, 성인답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와 죄상을 낱알이 스스로 폭로했기에,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음을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고백’했기에, 유명한 것입니다. 성인은 그저 좌충우돌하며 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탐구하고 모색했기에 하느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이 고백의 과정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힘든 고백이자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고해성사, 불편함으로 치유와 화해를

모든 신자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여야 한다.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 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20, 989조 참조)…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참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90조 1항, 2항

고해성사는 참 불편합니다. 잘못을 ‘내 탓’이라고 인정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인정하기 싫고 밝히기 싫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고해성사는 사제들에게도 불편합니다. 남의 죄를 듣는 것도 불편하고, 특히 판공성사 때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세로 고해를 듣고 또 머리를 쥐어짜내 혼화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고된 일을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 앞에서, 사제들이 고작 두어 시간 성사 주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의무와 권리로 만나는 관계에는 가족관계 자체에서 오는 불편과 화해의 과정이 없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편리 추구의 이데올로기에 안주하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인간관계는 최고의 행복을 실현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불편이 없이는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는 고락상생(苦樂相生)의 원칙에서 보면 불편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다.

—박승희, 사회복지와 가족부양 사이의 딜레마, 「지식의 최전선」, 한길사

고해성사가 불편한 진짜 이유는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라 인정하면서 내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불편해서, 최대한으로 일반적인 죄만 찾아서 가급적 나를 모르는 사제에게 고백하면 덜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사의 알맹이가 빠져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나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해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참으로 ‘신자’인 분들은 진짜 ‘성사’를 보기 원합니다. 해치우는 위궤성사가 아닌, 치유와 화해의 성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법 규정에 따라 딱, 고만큼만 해내는 성사는, 합법적이지만 편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사람을 율법의 노예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한국 교회의 특별한 관행인 판공성사 제도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형식화, 의무화되어가는 상황이 신자들과 사제들로 하여금 점점 더 고해성사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안고 나를 열고 사제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소통할 때, 성사는 하느님 은총의 온전한 통로가 됩니다.

은총의 시기를, ‘은총’으로 보내시기를.



교구/본당

사무장 연수

일시: 3월 22일(화) 13:00~24일(목)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복음화분과위원 연수

일시: 3월 27일(주일) 10: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 신앙강좌

일시: 3월 27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주제: 교회의 성사(강사: 이정림 신부)
대상: 교구 내 청년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및 18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 완치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자(강좌 당일 아침,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결과)

준비물: 필기구, 텀블러, 마스크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청년부검색

교구 성경사목부 말씀 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3월 31일(목)까지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별도)
대상: 1)봉사자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1, 2 중 하나 해당되면 됨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3월 기도모임

일시: 3월 21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마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 UCC공모전

접수: 3월 28일(월)~4월 8일(금)까지
참여신청서(QR코드로 접속), 작품(E-메일로 제출)
E-메일: mscrc@hanmail.net(제목: UCC공모전)
대상: 창원시민(아동, 청소년 포함)
공모주제: 장애인식개선 관련 내용(장애인 권리, 편견, 차별, 편의시설 등)
분야: UCC(광고, 브이로그, 스톱모션 등 모든 영상 장르 가능)
작품규격: 시간-3분 이내, 용량-300MB 이하
주관: 마산장애인복지시설을위한연합회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손경희 070·8798·4807
▶시상내역 및 결과발표 등 자세한 사항은 마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s://www.mscrc.or.kr/>) 참조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대전교구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안내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 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재속예수성심전교회 회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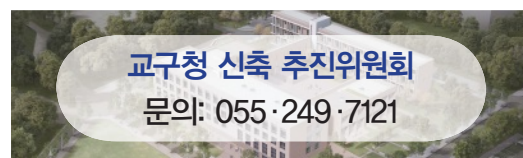
일정: 매월 첫 주일 10:00
장소: 부산 장전동 수녀원
대상: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55세 이하 평신도
문의: 010·2312·2396

함영권 유스티노 신부 모친 선종

함영권 신부(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장)의 모친 김경국(마리아)님께서 3월 10일(목) 선종하여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 청년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3월 27일(주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보유 자격증 사본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9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기관/단체

2022년 1학기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개강일: 3월 21일(월) 10:00
1학기- 3월 21일~7월 4일, 15주간
장소: 상남동성당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별도)
대상: 1)기초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이 5년 이상 봉사자, 3)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기타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기간: 3월~12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7.5%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3월 31일(목)까지(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소품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갈라무니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010-5055-0076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다

김유철 스테파노 시인/ 가톨릭문인회

얼마 전 대학생들과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다>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롤러코스터는 궤도를 따라 빠르게 달리는 기구이다. 학생들은 대학, 낭만, 인생, 젊음, 열정이 아닌 스펙과 취업에 매달리는 그들의 현실을 고민했다. 그리고 스스로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학생들은 예리하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방향전환’으로 읽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신선하고 진지했다.

며칠 사이로 알 만한 사람들의 부고소식을 들었다. 때가 되어 철새가 사라져도 아쉬운 것이거늘 지인들이 길 떠난다는 소식은 많은 여운을 남긴다. 그들은 이제야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것일까? 그들이 노환으로, 심장 마비로, 코로나19로, 수많은 병명으로 맞닥뜨린 죽음은 탈출인가? 방향전환인가? 사라짐인가?

사순3주일의 입당송인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 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시편이 저절로 나온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는 일은 “미안해”라는 말과 같다고 지인들의 떠남을 보며 새긴다. 프로그램을 함께한 대학생들이 “롤러코스터에서 내려도 지레짐작 우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즐겁게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환함을 보면서 외줄 로프를 타던 나의 고뇌를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음을 느낀다. 나는 결국 롤러코스터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오래전 짧게 수도자로 사는 동안 만났던 독일인 수사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 “혼자는 공동체를, 그리고 공동체는 혼자를 거룩하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삶일세. 고독 없는 친교는 많은 말을 낳고, 친교 없는 고독은 교만을 낳게 된다네.” 마주칠 때마다 먼저 환하게 웃던 그 수도자도 내가 오십이 되기 전 길을 떠났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는지 공동체였는지, 고독 속에 머물렀음인지 친교 속에 살았던 것인지. 단지 나는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롤러코스터 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려도 하느님 안이라는 것을.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교육

소식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교육이 3월 11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진행되었으며, 11개 본당 13명이 참석하였다.

당신의 손길은 어디에?—정찬의 『종이 날개』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아파트 공터 버려진 의자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생명이 모두 빠져나간 듯 움직임 하나 없이 그렇게 앉아 있고는 하였다.

정찬의 『종이 날개』는 창 너머 이 광경을 보게 된 ‘나’가 여인의 사연을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30대의 행복했던 이 여인은 교통사고로 남편과 어린아이를 잃었다. 아이를 안고 있었으면서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여인은 자신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그러고는 스스로 폐쇄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다. 낯선 그녀가 내민 구원의 손길은 종말론이었다. 그녀의 말로는 한 달 뒤 휴거가 일어나며 이후로 7년의 환난 끝에 예수의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이었다. 여인은 죄의 덩어리인 자신의 육신이 순식간에 다른 존재로 바뀌고 순백색 세마포에 싸여 빛처럼 빠르게 상승한다는 그녀의 말에서 희망을 느낀다.

그 순간 저는 오열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 순백색 세마포에 싸여 상승하고, 나의 고통에 태연했던 세상은 마친 그 고통을 당하는구나.

물론 종말론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홍보용 책자를 읽어본 ‘나’의 말처럼 선택받은 이는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그들의 주장은 인간을 분리시킬 뿐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골짜기에 다리를 놓지 않았던가. 그런데 종말론은 여인의 독백처럼 자신은 구원받고 상대방은 파멸하는 증오의 믿음인 것이다.

이 그릇되고 허무맹랑한 종말론에 왜 여인은 기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세상이 그녀의 고통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오직 종말론의 낯선 여인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그 손을 잡았던 것이다.

빛이 캄그리 사라져버린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유일한 빛이 논리와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해서 그 빛을 외면할 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겪었던 불행이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어지나요?

약속한 날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에서 모여든 8천 신도는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만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면 그들은 다시 세상을 사랑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종이 날개』는 이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작품이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기도는 끝났고, 불빛은 꺼져버렸다구요. 정말 꺼져버렸을까요? 불빛이 꺼졌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운명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 잔혹한 상처에 할퀴고 할퀴어 두 발로 땅 위에 설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누군가가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지로 만든 날개라도...

지식인인 ‘나’는 그녀의 아픔을 창 너머로 엿보기만 했지만 종말론의 한 여인은 종지로 만든 허약한 것이나마 그녀에게 구원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랑의 실천이다. 세상은 당신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